

기획

도시 미래 살 썬우는 '문화 브랜드'를 만들자



▲아시아 예술극장의 핵심 콘텐츠인 '월드뮤직 페스티벌'



▲빛고를 시민문화관



▲광주문화회관 정경

이제 공연장은 단순히 콘서트나 연극을 즐기는 아트홀이 아니다. 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평생교육장이자 도시 품격을 높이는 문화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잘 가꾼 아트센터'는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풍요롭게 한다.



▼광주문화재단의 브랜드공연인 '자스민 광주'

▲아시아 예술극장의 중극장

Art Center

아트센터, 도시 문화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국내편
(1) 왜 아트센터인가

뮤지컬 '맘마미아' '미스 사이공' 서울공연을 잇따라 성공시킨 CML프로덕션의 기술감독 카스 존스(Cass Jones)은 지난해 12월 광주를 찾았다. '미스사이공'의 흥행신화를 광주, 대전, 대구까지 있는 전국 투어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그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내건 광주에 큰 기대를 가졌었다. 뮤지컬 전용홀은 아니더라도 문화도시에 걸맞는 무대를 상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진담사차 광주문화회관을 찾은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명과 무대막 전천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상부그리드와 배턴장치 등 핵심시설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창출을 위해선 최소 1개월 이상의 공연을 해야 하지만 장기대관도 여의치 않았다.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으로는 광주문화회관 대극장(1732석)이 유일해 자체 규정상 일주일 이상은 대관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수요가 많다 보니 광주문화회관의 주말과 휴일 대관경쟁률은 최고 13대 1에 이를 정도다.

'미스 사이공'의 전국투어를 꿈꿨던 존스의 아심은 광주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나 접어야 했다. 세계 4대뮤지컬로 불리는 '미스 사이공'의 한국공연 스케줄에 대구(11월24일~2012년 1월8일), 대전(내년 상반기예정)은 있고 광주는 없는 속사정이다.

'미스 사이공'이 광주에 오지 못한 까닭은 광주문화회관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오는 10월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광주의 대표적인 인프라지만 공연장의 시계는 20년 전에 멈춰서 있다. 갈수록 블록버스터 뮤지컬과 공연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광주문화회관의 무대

1000석 공연장 문화회관뿐...시설 열악 대형 뮤지컬 기회 하드웨어·콘텐츠 발굴 문화수도 걸맞는 예술명소 키워야

는 이같은 스케일을 수용하기에 시설과 운영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문화회관의 '역사'를 말해주는 노후된 무대와 전용연습실, 휴게실, 편의시설, 로비 등은 거의 낙제수준이다.

현재 광주문화회관에는 6개의 시립예술단(단원 274명)이 소속돼 있지만 단원들이 연습할 전용공간이 없어 문화회관 로비는 '전천후 멀티공간(?)'으로 쓰인다. 한쪽에서 단원들이 연습하고 다른 한쪽에선 휴식을 취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수익원칙을 들여 간헐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왔지만 무대시설과 공간배치 등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메이크업 오버'(makeup over)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1000석 이상의 유일한 공연장이다 보니 장기간 '문을 닫을' 경우 대형작품 등 대부분의 공연이 사실상 올스톱 되기 때문이다.

관객을 위한 서비스 역시 사각지대다. 광주문화회관을 찾은 관객들은 공연전 늘 어수선한 로비에서 서성거리다 입장하는 데 익숙해 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대다수 유명공연

장의 경우 수십 명의 하우스매니저들이 마치 VIP 고객을 맞이하듯 공연장으로 안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문화회관의 경우 올해부터 2명의 하우스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지만 대극장과 소극장(500석)에 각각 배치되다 보니 이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

콘텐츠와 운영도 문제다. 광주시립예술단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주문화회관의 지난해 예산은 112억7천만원, 이 가운데 시립예술단의 인건비가 99억9천만원이고 순수공연예산은 12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6개의 시립예술단이 약 2억원씩으로 1년 공연일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근래 1편당 수백여원이 들어가는 뮤지컬과 공연이 '대세'인 것을 감안하면 '퀄리티' 높은 무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또한 관(官)주도의 조직분위기도 시급한 과제다. 광주문화회관의 수장(관장)은 시청 공무원들이 1~2년씩 돌아가며 맡는 순환직이다 보니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발 빠르게 충족시키는 콘텐츠 개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의 '빛'이라고 불리는 빛고를 시민문화관(715석)과 5·18 기념문화관(800석)도 시설과 운영, 프로그

램 등에서 문화광주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최근 서울 등 대도시들이 양질의 공연을 위해 뮤지컬, 오페라 전용홀을 건립하고 있는 추세지만 광주는 이 같은 트렌드에서 한발짝 비켜나 있다. 오는 2014년 개관하는 아시아 문화전당의 아시아예술극장(대극장·2000석과 중극장(550석)이 좋은 예로 전용홀이 아닌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가변형 시설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바이호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다. 국내의 각 도시들은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미술관과 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올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준높은 아트센터를 건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공연과 교육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예술'을 선물한다. 서울 예술의 전당, LG아트센터, 충무아트홀, 성남아트센터, 대전 예술의 전당, 김해 문화의 전당, 동경 오페라시티,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 워싱턴 케네디센터, 뉴욕 링컨예술센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벨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리즈는 낙후된 광주의 공연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하드웨어와 콘텐츠로 시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내외 유명 공연장들의 성공사례를 국내편과 해외편으로 나눠 소개하고자 한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p>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p>	<table border="0"> <tr> <td style="width: 33%;"> <p>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p> </td> <td style="width: 33%;"> <p>온돌 패백실 / 패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p> </td> <td style="width: 33%;"> <p>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p> </td> </tr> </table>	<p>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p>	<p>온돌 패백실 / 패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p>	<p>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p>	<p>Special Rate</p> <table border="0"> <tr> <td style="width: 20%;">부 페</td> <td>₩29,000 / ₩33,000</td> </tr> <tr> <td>양 식</td> <td>₩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td> </tr> <tr> <td></td> <td>₩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td> </tr> </table>	부 페	₩29,000 / ₩33,000	양 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p>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p>	<p>온돌 패백실 / 패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p>	<p>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p>									
부 페	₩29,000 / ₩33,000										
양 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ITALY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카우치-20종류

ITALY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 - 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